

도시개발 학생예측 실패에 학교 '아우성'

선운·수완지구 과밀학급 속출
컨테이너 임시교실 수업 등
개교후 잇단 증축 학생들 고층
상무중·치평중은 통·폐합 갈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선운초의 경우 기존 지상 3층의 학교를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학생수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또 다시 5층을 목표로 추가 증축에 들어갔다. 이때문에 완공이 늦어지면서 4학년 6개 학급 학생들은 운동장 한 칸에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학기 중 공사가 진행되는 탓에 병설유치원 유치원생과 저학년 학생들은 급식실 이동시 공사현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안전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다. 교실이 부족한 탓에 일부 과학실과 음악실은 용도가 바뀌었으며, 공사로 인해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데다 화장실과 급식실 이용에도 혼잡이 따른다.

선운초 학생 수는 2016년 5월 674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41명으로 늘었다. 또 올해 입학생 역시 광주지역 평균 97명을 훌쩍 뛰어넘는 280명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급격히 몰리고 있지만 수요예측이 어긋나면서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었다.

문제는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학교 증축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은 것은 선

운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선운지구보다 앞서 조성된 수완지구의 경우 개교 당시 30학급이던 수완초가 2년의 증축을 거쳐 50학급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밖에 인근 장덕초도 42학급에서 53학급으로, 큰별초는 36학급에서 45학급, 고실초는 30학급에서 41학급, 성덕초는 30학급에서 40학급, 성덕중은 30학급에서 36학급으로 증축됐다.

당시에도 협소한 학교시설 탓에 급식실과 화장실의 수용인원이 부족해 3·4교대로 점심을 먹거나, 용변을 참고 집에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학생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지 불과 몇 년 새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반면 학생 수가 줄어 통합 위기에 놓인 학교도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서구는 상무지구 내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합한 뒤, 남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두 학교 통합은 무산된 지 2년 만에 재추

진되는 것이어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상무중은 1985년 개교 당시 30학급 규모로 지어졌으나 현재 13학급, 1991년 3월 개교한 치평중은 24학급 가운데 15학급만 운영되고 있다.

당시 상무지구 조성으로 상무중을 신설했으나, 수요예측이 빚나가면서 기존 학교 바로 옆에 담배막을 하나 두고 중학교 하나를 더 신설했게 됐다. 그러다 이제와서는 학생 수 부족으로 두 학교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처럼 도시개발과 부동산 열황에 따라 광주지역 학교의 명암이 엇갈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지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개발에 따라 학생수가 얼마나 증가할 지 예측하는 '학생유발률'이 어긋나는 것에서 발생한다"며 "이런 오차는 담당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커지는 사례가 많은 점에서 교육청, 시청 등 관계자들이 도시계획과 학교 신설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 | | | |
|-----|-------|-----|-------|
| 해돋이 | 05:36 | 달뜨기 | 00:26 |
| 해질 | 19:41 | 달지기 | 13:53 |

주말에 비소식
하리고 오후부터 가끔 비 내리는 곳 있겠다.

| | | | | | |
|----|--------|-------|-----|--------|-------|
| 광주 | 차차흐려져비 | 25/32 | 보성 | 흐림 | 23/29 |
| 목포 | 흐림 | 25/30 | 순천 | 흐림 | 25/31 |
| 여수 | 흐림 | 25/28 | 영광 | 차차흐려져비 | 25/31 |
| 나주 | 흐림 | 25/32 | 진도 | 흐림 | 24/29 |
| 완도 | 흐림 | 24/30 | 전주 | 비 | 26/31 |
| 구례 | 차차흐려져비 | 25/32 | 군산 | 비 | 25/30 |
| 강진 | 흐림 | 25/30 | 남원 | 차차흐려져비 | 25/31 |
| 해남 | 흐림 | 24/30 | 축산도 | 차차흐려져비 | 23/27 |
| 장성 | 차차흐려져비 | 24/31 | | | |

◇ 바다 날씨

| | | | | | |
|--------------|------|---------|--------|---------|--------|
|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 앞바다 | 남~남서 | 0.5~1.0 | 남~남서 | 0.5~1.0 | |
|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0.5~1.5 | 남~남서 | 0.5~1.5 | |
| 남해 앞바다 | 남~남서 | 0.5~1.0 | 남~남서 | 0.5~1.0 |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남~남서 | 1.0~1.5 | 남~남서 | 1.0~1.5 |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남~남서 | 1.0~1.5 | 남서~서 | 1.0~2.0 | |

◇ 생활지수

| | | | | |
|------|-----|----|-----|----|
| 경고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좋음 |
| 미세먼지 | | | | |

◇ 물때

| | | |
|----|-------|-------|
| | 간조 | 만조 |
| 목포 | 01:01 | 08:01 |
| | 13:37 | 20:55 |
| 여수 | 09:27 | 02:46 |
| | 21:55 | 16:04 |

◇ 주간 날씨

| | | | | | | |
|-------|-------|-------|-------|-------|--------|-------|
| 27(토) | 28(일) | 29(월) | 30(화) | 31(수) | 8/1(목) | 2(금) |
| ☁ | ☁ | ☁ | ☁ | ☁ | ☁ | ☁ |
| 25/31 | 25/32 | 25/33 | 24/34 | 25/34 | 25/35 | 25/35 |



광주 북구 체력인증센터 개소
25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태봉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체력인증센터 개소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최경환 국회의원, 고점례 북구의회의장, 김성택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9월 11일까지 학생독립운동기념관서

남북정상회담 디오라마展

광주시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9월 11일까지 '4·27 남북정상회담 디오라마 기획전'을 진행한다.

시교육청과 광주통일관이 개최하는 이번 기획전은 휴전협정 66주년에 맞춰 4·27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을 되새기고,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열원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는 장면과 북측 판문각, 남측 자유의 집 등이 디오라마로 재현된다.

또 남북정상회담 사진 전시 및 이동통신관, 통일미래VR 체험 등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한다.

디오라마는 해당 장면과 소품, 배경 등을 작게 만들어 실제처럼 배치한 모형을 뜻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휴전협정 66주년을 앞두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며 "전시전 관람을 통해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내일 장맛비 온 후 35도 불볕더위

광주와 전남에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장맛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오겠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27일까지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해해 비가 내리겠으며, 이후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북상해 28일부터 한낮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7일까지 광주·전남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내리는 비의 강수량은 5~40mm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

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까지 광주와 전남내륙에는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이후 일요일인 28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은 다음주 내내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폭염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하는 날도 많고, 열대야도 자주 나타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 다음주 내내 장마전선은 북한지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동구 27일 계림동서 '현책방 거리서가 공유의 날' 행사

광주시 동구가 "27일 오후 4시 현책방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현책방 거리서가 공유의 날' 프로그램을 동구 계림동 문학서점 앞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 지원 '2019 행복한 책마을 조성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계림동 현책방 르네상스' 사업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현책방들의 진열대와 거리서가로 활용될 '지혜의 수레'를 방문

객들에게 처음 선보인다. 이동형으로 제작되는 '지혜의 수레'는 6곳의 계림동 현책방 앞에 배치된다. 행사 참여자들이 책을 동구책정원에 기증하고, 교환도 할 수 있는 '책 트렁크 데이'도 운영한다.

'현책방 르네상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엔 '두드림'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kimyh@kwangju.co.kr

맛집로드·물총싸움... 남구 무등·봉선시장 주말 다양한 축제

광주시 남구 전통시장들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봉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상인들은 26일 오후 6시부터 '달뜨는 달달한 봉선'이라는 주제로 맛집로드 탐방 축제를 연다.

봉선시장 대표음식인 닭강정을 비롯한 매운 족발·한우 떡갈비·우뫄가사리 콩국

컵 과일 등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어린이 컬러링 체험과 매직 풍선 이벤트도 진행된다.

27일에는 무등시장에서 세계 수영인과 내·외국인을 위한 대규모 물 축제와 맥주 축제가 열린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등시장 앞 도로에서 워터 퍼레이드와 함께 물총 싸움, '음악과 함께하는 워터 EDM

파티' 등 물 축제가 진행되며,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맥주 파티가 이어진다.

시장 주변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존이 마련돼 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지며, 아이들을 위한 슬라이드 수영장 및 키즈 존도 선보일 예정이다.

무등시장 상인들은 축제 수익금 일부를 남구 소외계층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김영희 기자 kimyh@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Him e Bionz Solar Energy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